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㉒ 정중종(淨衆宗)의 무상(無相)

▶ 한줄 요약
정중종을 세운 무상은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대중들을 교화했으며, 그 핵심적인 사상이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계정혜' 삼학에 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출신으로 정중종 열고 한 시대 풍미

동산법문(東山法門)의 홍인(弘忍) 문하에서 배출된 수많은 제자가 제도(帝都)로부터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그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동산법문이 당시의 불교를 장악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신라나 고구려 출신의 승려들이 동산법문에 귀의한 경우가 보인다. 도신(道信)의 법을 계승한 신라의 법랑(法朗)이 있으며, 홍인의 '십대제자' 가운데 고구려 승(僧) 지덕(智德)이 거명된다. 법랑은 최치원(崔致遠)의 '지증대사비명(智證大師碑銘)'에서 언급하고 있어 알려져 있고, 지덕은 홍인의 '십대제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명칭이 남아있는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십대제자'는 모두 한 지방의 법주(法主)를 맡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따라서 동산법문 계열에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법랑과 지덕 이외에 많은 신라와 고구려 승려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신라 출신으로서 동산법문 계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정중 무상(淨衆無相, 680~756 혹은 684~762)이고, 그가 세운 종을 정중종(淨衆宗)이라고 칭한다. 무상은 '지증대사비명'에도 그 명칭이 보이고, 최인연(崔仁渷)의 '낭공대사비(朗空大師碑)'에는 "건부(乾符) 2년(871), 성도(成都)에 이르러 여러 곳을 순례하다가 정중정사(靜衆精舍)에 이르러 무상대사(無相大師)의 영당에 예경(禮敬)하였는데, (무상)대사는 신라 사람이다. 영정에 참배한 후 후세에 남긴 아름다운 일화들을 모두 들어보니, 당(唐) 황제의 도사(導師)이며 현종(玄宗)의 스승이었다. 같은 나라 사람이면서도 그 시대가 달라, 후대에 법을 구하러 와서 그 자취를 찾게 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으니, 이미 신라에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상과 관련된 자료는 종밀(宗密)의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에 그 법맥이 언급되어 있으며, 〈송고승전〉과 명대에 편찬된 〈신승전(神僧傳)〉 등에 그 전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돈황본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가 발굴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법계와 행적이 밝혀졌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참조하여 무상의 행적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대법보기〉에서는 "속성은 김(金)이요, 신라왕의 족성(族姓)이다."라고 하지만, 〈송고승전〉과 〈신승전〉에서는 "본래 신라국의 사람이요, 그 국왕의 셋째 아들이다."라고 한다. 더욱이 〈송고승전〉과 〈신승전〉에서는 부왕이 죽고 무상의 동생이 왕위에 오르자 무상이 귀국하여 왕위를 찬탈할까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추정된다. 만약 실제로 무상이 왕자였고 신라에서 자객을 보냈다면, 앞에서 언급한 낭공이 정중사를 참배한 일을 기록하면서 이를 누락시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에 구법한 승려 가운데 '김' 씨 성을 가지면 왕족, 혹은 왕자로 각색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지장보살 신앙의 본원이 된 김지장(金地藏)은 초기 문헌에는 "신라왕인 김씨 근속(近屬)"으로 표현되다가 명대 이후에는 "신라 왕자"이며 "김교각(金喬覺)"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얻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신라 국왕의 셋째 아들'과 '자객' 설은 후대에 형성된 전설이 아닐까 한다.



신라출신 무상은 정중종을 세우고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대중을 교화했다. 사진은 송광사 구족계 수계법회 모습.

〈역대법보기〉에서는 막내 누이가 출가하자 무상도 따라 출가하였다고 하고, 〈송고승전〉에는 신라의 군남사(群南寺)에서 출가하였으며, 개원(開元) 16년(728)에 장안(長安)에 도착하여 선정사(禪定寺)에서 현종(玄宗)을 알현하였고, 〈신승전〉에는 현종으로부터 '무상'의 법호를 받았다고 한다. 〈송고승전〉에서는 그 후에 촉(蜀)의 자중(資中: 현 四川省 內江市 資中縣)에서 지선(智詵)을 만났으며, 그때 처적(處寂)으로부터 '무상'의 법호를 받고 측천무후(則天武后)에게 받은 마납의(磨納衣)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역대법보기〉에서는 스승을 찾아 각처로 돌아다니다 자중의 덕순사(德純寺)에 이르러 당화상(唐和上: 處寂)을 만났으며, 당화상에게 소지공양(燒指供養)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 후에 '가사신의(袈裟信衣)'를 받아 은거하였다고 한다.

〈송고승전〉에는 은거 후, 수행하기를 매번 입정(入定)하여 5일을 넘겼으며, 후에 성도(成都)로 들어와 참답게 두타행(頭陀行)을 행하여 사람들이 점차 존중하여 정사(精舍)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당시 익주(益州) 장사(長史) 장구 겸경(章仇兼瓊)이 찾아왔으며, 그로 인해 '안사(安史)의 난'을 피해 촉(蜀)에 들어온 현종이 내전에 무상을 맞아들여 예배하였고, 또한 성도 현령(縣令) 양익(楊翌)이 귀의하여 정중사·대자사(大慈寺)·보리사(菩提寺)·영국사(寧國寺) 등을 건립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역대법보기〉에서는 다만 "후에 장구대부가 선법(禪法)을 열기를 청하여, 정천사(淨泉寺: 淨衆寺)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기를 20여년이 지났다."라고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신라출신, 동산법문 귀의 정중종 세워
핵심사상 無憶·無念·莫妄 삼구어 집중
비문 "唐 황제의 導師이며 현종의 스승"

〈송고승전〉과 〈신승전〉에서는 "지덕(至德) 원년(756) 5월(建午月) 19일 병환이 없이 시멸(示滅)하였는데, 춘추가 77세였다."라고 한다. 그러나 〈역대법보기〉에서는 무상은 보응(寶應) 원년(762) 5월 5일 갑자기 무주(無住)를 떠올리고, 그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비밀리에 공인(工人) 훈선(薰璿)에게 신의(信衣)와 17종의 다른 옷을 보내며 부촉하였고, 무상의 입적을 79세의 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달마의 가사전법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이는 까닭은 당시 선종의 정통성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무주의 보당종(保唐宗) 계통에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의 법계를 계승한 것으로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밀의 〈원각경대소초〉 권3에서는 정중종의 법계를 "근본은 원래 오조(五祖) 문하에서 나뉘어 나온 것으로 이름은 지선(智詵)이며, 바로 (홍인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본래 자주(資州) 출신으로, 후에 자주의 덕순사로 돌아와 교화하였다. 속성(俗姓)이 당(唐)인 제자 처적(處寂)이 계승하였다. 후에 당선사는 네 제자를 두었다. 성도부(成都府) 정중사 김화상(金和尙)은 법명이 무상으로, 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도신→홍인→지선→처적→무상"의 법계가 옳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무상의 선사상은 어떠한가? 〈역대법보기〉에서는 무상의 교화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화상(金和上)은 매년 12월에서 정월에 이르도록 사부대중, 백천만인에게 수계(授戒)하였다. 엄숙하게 도량을 시설하여 고좌(高座)에서 설법하였다. 먼저 '소리를 끌어 염불[引聲念佛]' 하게 하여 숨이 다하도록 하고, 생각이 끊어지고 소리가 멈추어 생각이 그칠 때 다음과 같이 설한다. "기억을 없게 하고[無憶], 생각을 없게 하고[無念], 망령되지 않게 하라[莫妄]." '무억'이 계(戒)이고, '무념'이 정(定)이며, '무망'이 혜(惠)이다. 이 삼구어(三句語)는 바로 총지문(總持門)이다."

이로부터 보자면, 무상은 매년 수계법회를 통해 대중들을 교화했으며, 그 핵심적인 사상이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계정혜' 삼학에 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계의식은 바로 동산법문을 창립한 도신으로부터 온 것이라 추정된다. 도신에게 〈보살계법(菩薩戒法)〉이라는 저술이 있으며, 동산법문을 계승한 다른 계통, 예를 들어 선습(宣什)의 '남산염불문선종(南山念佛門禪宗)'에서 무상과 동일한 수계의식을 시행했다는 기록들이 보인다. 따라서 무상 등의 동산법문의 계승자들은 거의 같은 수계의식을 통하여 교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역대법보기〉에서는 '삼구어' 가운데 특히 '무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를 해석하기를, "염불기(念不起)는 마치 거울의 표면이 능히 만상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염기(念起)는 거울의 뒷면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기신론(起信論)〉에서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있다고 하는데, 무념(無念)이 '진여문'이고, 유념(有念)이 '생멸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종선(北宗禪)의 신수(神秀)와 거의 유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무념'이나 '염불기'와 같은 용어들은 홍인의 〈최상승론〉으로부터 신수의 〈대승무생방편문〉, 혜능의 〈육조단경〉, 신회의 〈하택신회선화록〉 등과 다양한 교학(敎學)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념'이나 '염불기'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사상적 함의를 지님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선에 있어서 용어가 같다고 결코 같은 사상이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상이나 신수는 '염불기'와 '무념'을 〈기신론〉의 '일심이문'의 입장에서 사용하지만, 혜능의 〈육조단경〉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신론〉의 사유양식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나아가 무상의 선법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보당종(保唐宗)의 무주는 '무념'을 염(念)의 작용이 없는 것이라 해석하지만, 〈육조단경〉에서의 '무념'은 결코 '염'의 작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과 같다.

신라 출신인 정중 무상 선사는 중국에 구법하여 종장(宗匠)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음에 우리에게 친밀함을 더한다. 무상은 수많은 제자를 교화하여 동산법문을 파촉(巴蜀) 지역에 유행하게 하였고, 황제의 귀의를 받았으며, 나아가 당대에 신라에까지 그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끊임없는 초월, 즉 '향상일로(向上一路)'를 제창하고 있는 조사선(祖師禪)의 종풍(宗風)에서 본다면, 초기에 속한 무상의 선사상은 한계를 드러냄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사상이 철저한 토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후대에 걸출한 조사선이 출현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무상의 정중종이 지니는 중요한 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

침대 유해수맥파는 각종 질병및 암을 유발한다.

◈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각종암,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피로 회복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 불면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유해수맥파 차단으로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 유해수맥파로 인한 악몽, 가위눌림 등을 해결합니다.

– 수맥파차단 온수매트 샘플색상 –


수맥파차단 꽃담 싱글 수맥파차단 금사 더블 수맥파차단 황토 싱글 수맥파차단 루비 싱글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 규격 (온수보일러-전자파 제로)

호칭	규격(가로×세로)	두께(T)	온수보일러
S	1000×2000	30	220V60HZ~ 280W
W	1400×2000	30	"
Q	1500×2000	30	"

수맥파차단 건강온수매트와 함께
면역력을 높여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판 : 오 륙 building
전화 : (062) 351-1981 HP : 010-3616-1200
공장 AS : (031) 765 – 9297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0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약사
• 주 지 : 천약 (속명 : 장이석)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391

위 사찰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량사
• 주 지 : 영암 (속명 : 양덕오)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유곡로 47-5(송촌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